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8 May 2000 (morning)

Lundi 8 mai 2000 (matin)

Lunes 8 de mayo del 2000 (mañana)

3 hours / 3 heures / 3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Section A: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Include in your commentary answers to all the questions set.
- Section B: Answer one essay question. Refer mainly to works studied in Part 3 (Groups of Works); references to other works are permissible but must not form the main body of your answer.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Section A : Écrire un commentaire sur un passage. Votre commentaire doit traiter toutes les questions posées.
- Section B : Traiter un sujet de composition. Se référer principalement aux œuvres étudiées dans la troisième partie (Groupes d'œuvres) ; les références à d'autres œuvres sont permises mais ne doivent pas constituer l'essentiel de la réponse.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Sección A: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o de los fragmentos. Debe incluir en su comentario respuestas a todas las preguntas de orientación.
- Sección B: Elija un tema de redacción. Su respuesta debe centrarse principalmente en las obras estudiadas para la Parte 3 (Grupos de obras); se permiten referencias a otras obras siempre que no formen la parte principal de la respuesta.

A 부

다음 (a)와 (b) 중 하나만 골라 논평하라.

1(a)

언어의 차이를 찾아내어 두 가지 언어의 우열을 확인하려는 자세는 언어 자체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각각 독립된 조직을 갖고 있고 그 조직은 그 자체로서 완전합니다. 한국어는 하나의 언어로서 그 자체가 통일된 조직입니다. 전체 속에는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작은 부분들 자체들도 독립될 수 있는 통일된 조직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 언어 조직 속에 몽뚱그려져 있습니다. 몽뚱그려져 있다는 말은 작은 부분들이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몽뚱그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언어란, 사람이 의식적으로 각 부분을 모아서 몽쳐 놓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어는 그 스스로가 본래부터 통일된 하나의 조직이므로, 그 속의 작은 부분들은 본래부터 스스로 몽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언어의 부분 부분을 비교해서 두 언어의 우열을 논의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어의 천 단위 숫자읽기와 한국어의 만 단위 숫자읽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일간지의 독자 투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만 달위로 수를 읽습니다. 예컨대, 4,321은 “사천 삼백 이십 일”로 읽고, 그 다음 즉 만 단위에서부터는 “만”만 붙입니다. 따라서 “사천 삼백 이십 일만”(43,210,000)까지는 기본 단위인 네 자리 4,321을 세고, 그 끝에 “만”만 붙이면 됩니다. 그 위의 단위로 올라가면, “만” 대신 “억”을 붙여서 “사천 삼백 이십 일억”(432,100,000,000)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도 기본 단위 읽기 4,321은 동일하고, 끝에 “억”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독자의 말은, 왜 숫자쓰기에서 셋째 자리에 단위 표시를 해서 읽기 불편하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숫자의 단위 표시는 네 자리로 해야 옳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병원 (1991) 우리말의 새로운 이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글의 구조를 분석하여 말해 보라.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언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게 하는가?

-이 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을 지적해 보라.

1(b)

바람 부는 날

박 성 룡

오늘따라 바람이
저렇게 설새없이 설레고만 있음은
오늘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5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풀잎에
나뭇가지에
들길에 마을에
가을날 잎들이 말갭게 쓸리듯이
10 나는 오늘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의고만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아 지금 바람이
저렇게 못건디게 설레고만 있음은
15 오늘은 또 내가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음을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1988)

-이 시의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시의 구조를 분석해 보아라.

-이 시의 서술 기법에서 나오는 시적 효과를 말해 보라.

-시인은 이 시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가?

B 부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에세이를 써라. 공부해 왔던 3 부의 3 작품 중 적어도 2에 근거하여 이 답을 써라. 다른 작품들을 참조시킬 수는 있으나 답의 주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설과 사회비평

2a) “원래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게 되어 있으므로 소설은 사회를 비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하여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또는

2b) “주인공의 출신지역, 사회계급 등의 배경이 소설 속에서의 사회에 대한 비평적 태도를 좌우한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하여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사랑과 문학

3a) “사랑은 인생에서 뺄 수 없는 요소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하여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또는

3b) “사랑 없는 인생은 비극이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하여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영웅주의와 문학

4a) “현대에는 영웅이 있어야 보통 시민들이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읽은 소설들을 참조하여 위의 말에 대해 논하라.

또는

4b) “영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

읽은 작품들 속에서 위의 말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말하라.

가난과 문학

5a) “가난한 사람의 운명은 구제하질 못 한다.”

읽은 작품들을 보고 위의 말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찾아
논해 보라.

또는

5b) “가난은 택할 것이 못되나 경험해 봐야 사람이 된다.”

읽은 작품들 속에서 위의 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
하라.

서술의 기교

6a) “많은 문학작품에서는 교훈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하고 있다.”

읽은 작품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 말해 보라.

또는

6b) 읽은 작품들을 골라 첫머리 장면의 구성상 공통점과 차이
점을 말하라.

긴 에세이

7a) 에세이에 담겨질 주제를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 어떤 화법
구조가 필요한가를 읽은 에세이들에서 검토하라.

또는

7b) 읽은 수필들 중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교훈적 소재가 있으
면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를 서로 비교해 말해 보라.

